

— S-145 —

급성 췌장염 후에 발생한 십이지장 누공이 동반된 복막뒤공간의 농양

인하대병원 내과학교실

*유성수 · 정석 · 김영수 · 신용운 · 김형길 · 이돈행 · 권계숙 · 이진우 · 이정일

급성 췌장염의 합병증으로 복막뒤공간의 농양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기에 십이지장 누공이 동반된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급성 췌장염 후에 복막뒤공간의 농양 및 십이지장 누공이 동반된 경우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43세 남환이 음주후에 발생한 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본원 내원 1주일 전에 음주후 발생한 복부 통증을 주소로 타병원 내원하여 음주후의 급성 췌장염 의심하에 대증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서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특이 병력은 없었으며 복부 통증 이외에는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신체검사에서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고 복부에 동통이 있었다. 전혈구 검사에서 백혈구 15000 /ul, 혈색소 15.4 g/dL, 혈소판 470000 /ul 이었다. 생화학적 검사에서 AST/ALT 44/52 IU/L 로 증가 소견 보였고 amylase/lipase 44/52 IU/L 이었다. 입원후 시행한 위내시경 결과 십이지장의 2번째에서 3번째 부분에 고름이 관찰되었다. 이후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 결과 좌측 신장 주위로 6.6X3.8 cm 크기의 농양 소견이 보였다. 농양과 십이지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검사에서 십이지장의 3번째 부분에 고름이 보였고 그 주위에 십이지장 천공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다. 캐놀라를 천공이 의심되는 부분에 위치시키고 조영제를 주입하자 조영제가 복막뒤공간으로 새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래서 double pigtail plastic stent를 십이지장 3번째 부분의 누공을 통해서 농양내로 거치시켰다. 2주후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 결과 복막뒤공간의 농양은 거의 사라진 소견 보여 double pigtail plastic stent를 제거한 뒤 환자는 퇴원하였고 현재 별다른 부작용 없이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 S-146 —

췌장의 관내 유두모양 점액종양에 동반된 총담관암 1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소화기내과

*장원철 · 이정환 · 옥경선 · 정태엽 · 허진국 · 류수형 · 김유선 · 문정성

서론 : 췌장의 관내 유두모양 점액종양(IPMT)은 조직학적으로 췌관내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유두모양의 성장을 보이는 질환으로, 다량의 점액 분비와 이로 인한 주췌관의 확장 또는 췌관 분지의 낭성 확장이 특징인 질환이다. IPMT에서 췌장 외 종양이 동반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IPMT에 병발한 담관암은 드물다. 저자들은 IPMT와 동반되어 발생한 총담관암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77세 남자가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심부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에서 담석 및 총담관 결석으로 수술 받은 병력이 있었고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 및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에서 원위부 총담관암 및 췌장의 IPMT가 진단되었다. 본원에서 시행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에서 유두부 개구부를 통한 점액 배출은 없었으며, 총담관의 심한 확장과 원위부 총담관의 편축성 협착소견을 보였다. 내시경 초음파에서 총담관의 확장과 원위부 총담관에 저에코성 종괴가 관찰되었고, 췌두부 췌관의 분지부에 점액 예코를 포함하는 다수의 낭종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총담관암 및 췌장의 분지형 IPMT 진단하에, 외과로 전과되어 수술을 시행받았다. 술 후 조직의 육안 소견에서 주췌관의 확장은 없었고, 췌관 분지의 낭성 확장으로 인한 췌두부의 낭성 병변들이 관찰되었으며 내부는 점액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총담관은 심한 확장을 보였고, 원위부 총담관에 위치한 종양은 현미경 소견에서 잘 분화된 선암종으로, 2.0x1.6cm 크기의 선근종의 표면에 촌점성의 선암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결론 :** IPMT 환자에서 대장선종 및 대장암, 위암을 비롯한 췌장 외 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환자에서 췌장 외 종양의 발생여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